

한전, 배전망 독자 기술 앞세워 유럽 시장 진출



라트비아 사달레스 티클스와 업무협약

배전망 운영 효율 방안 공동 연구 추진

친환경 에너지 중심 글로벌 산업 선도

한전전력이 라트비아 최대 배전사인 사달레스 티클스사와 협력해 유럽 전력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한전은 18일 “최근 사달레스 티클스사와 차세대 배전망 관리 시스템인 ‘Grid-K ADMS’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럽 전력 시장 진출 초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회 국제배전망협의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정치교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과 비간츠 라진스(Vigants Radzins) 라트비아 사달레스 티클스사 부사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한전의 Grid-K ADMS 기술 실증 ▲배전망 운영 효율화 방안 공동 연구 ▲유럽시장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전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배전망 통합 운영 플랫폼 ‘Grid-K ADMS’를 중심으로 기술협력과 사업화는 물론, 배전 분야 전반의 기술 교류

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Grid-K ADMS’는 지난 2024년 9월 전국 확대 구축을 완료한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으로 작업자와 설비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배전계통을 감시·제어함과 동시에 분산형전원 연계 배전망을 최적화하는 배전망 통합운영 플랫폼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트비아는 200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으로 배전망의 고도화와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한전의 Grid-K ADMS는 라트비아의 에너지 전환에 부합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전 역시 이를 기반으로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앞으로도 Grid-K ADMS의 국내 확산과 함께 다양한 국가와의 기술 협력과 공동 사업화를 추진해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글로벌 전력 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교 한전 영업배전부사장은 “한전의 우수 배전망 기술이 이번 협약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 받았다”며 “Grid-K ADMS를 중심으로 라트비아 전력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나아가 글로벌 전력시장에서의 기술협력과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연태호 기자

농어촌공, 우기 대비 농경지 침수 예방 총력

농업 배수로 4천129km 정비 완료

한국농어촌공사가 여름철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배수로 정비 완료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이번 달까지 상습 침수구역과 타작물 재배지, 시설하우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총 4천129km의 농업용 배수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농업용 배수로로는 논밭에 고인 빗물이나 지하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모아 인근 하천이나 배수장으로 흘러보내 농작물 침수 피해를 막고 토양 과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배수로의 통수 기능 확보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정비는 배수로 내 수초 제거와 퇴적토

준설 등을 통해 안정적인 통수 능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전국 단위의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37억 원이 늘어난 182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정비 규모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올해 상습 침수지역과 타작물 재배지,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지 등 피해 우려가 큰 전남, 충남,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 집중적으로 정비를 완료했다.

장상규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장은 “향후 호우·태풍 등으로 배수로가 손상되는 경우 신속히 긴급 정비를 추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침수 피해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태호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가공식품, 주거비 등 생활물가 평가와 향후 주요물가 동인 점검'을 주제로 열린 2025 상반기 물가 설명회에 참석해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은 “韓 의식주 물가 OECD평균 크게 웃돌아”

과일·육류 등 평균의 1.5배 이상

고물가로 실질구매력 증가율 ↓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 생활 물가가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도 너무 높아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최근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인 2021년 이후 올해 5월까지 필수제 중심의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15.9%)보다 3.2포인트(p) 높았다.

팬데믹 기간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상 악화 등으로 식료품·에너지 물가가 크게 오른 데다가, 최근에는 수입 원자재가

격과 환율 누적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물가에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생활물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물가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식료품·의류·주거비는 각 156·161·123으로 집계됐다. 세계 주요국 평균을 큰 폭으로 웃돌 만큼 비싸다는 뜻이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 EIU 통계(2023년 기준)에서도 우리나라 과일·채소·육류 가격은 OECD의 1.5배 이상이었다.

이렇게 높은 생활물가는 결국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끌어올려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2021년 이후 가계의 명목구매력(근로 소득)이 높은 물가 상승률을 상쇄할 정도로 총

분히 늘지 못하면서 2021년~2025년 1분기 중 평균 실질 구매력 증가율(2.2%)이 팬데믹 이전(2012~2019년·3.4%)과 비교해 떨어졌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생활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체감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 가계 기대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영향을 줘 중장기적 관점에서 물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원재료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특정 품목의 충격이 다른 품목으로 확산하는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상승으로 취약가계의 부담이 커진 현실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할당관세 등을 통해 농산물 수입 원재료 가격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중기청 ‘상반기 수출전략세미나’ 성료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8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2025년 상반기 광주·전남 수출 전략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광주·전남 수출 중소기업 대표 및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마케팅 전략 공유, 미국 관세 동향 분석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나경우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팀장이 ‘미국 관세부와 관련 최신 동향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용’을 주제로 설명을 진행했다. 나

팀장은 “글로벌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정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금, 수출, R&D 등 분야별 주요 지원사업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임수옥 비제이코리아 과장(해외사업부)이 자사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과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임 과장은 “고객사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 개발과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통해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며 현재 미국 대형 유통기업과의 지속적인 납품 계약 사례를 소개해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정은솔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